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 채용규정 나이제한 논란

35세 한정...비정규직 25% 채용기회 봉쇄 '세습 채용' 이어 비정규직들 박탈감 키워

지난 16일 발생한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분회(비정규직 노조) 간부의 분신사태와 관련해 연령제한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기아차 내부의 채용규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분회 조합원들은 최근 광주공장 신규채용 1차 서류심사에서 나이 제한에 걸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회

를 이번 채용 과정에서 35세로 확대했지만 450여명의 비정규직 분회 조합원 가운데 25%에 이르는 110여 명이 35세 이상으로 알려져 사내하청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정규직 채용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 노조 박병규 광주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아차 내부 채용규정의 나이제한과 학력제한은 자동차 생산조건과는 무관한데도 규정 때문에 사내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또다시 사내 비정규직은 허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나이제한 등으로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아차 노사는 최근 생산직 신규 채용 때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 1명에 한해 1차 전형 때 주면 10% 가산점을 2차 전형 때 5%(3.5점)의 면접 점수를 더 주기로 해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습 논란'마저 부른 장기근속자 자녀 우대조건이 지난 16일 발생한 분회 김모(37) 조지부장의 분신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분회 관계자는 "광주공장 비정규직의 평균 근무연한은 7.5년에 불과해 장기근속자 자녀 우대조건 등 비정규직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노조원 사이에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 광주공장의 생산직 채용과 관련 1차 서류심사 결과 비정규직 조합원은 장기근속자 자녀 합격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괴소문까지 돌고 있다. 기아차 측은 "정확한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밝힐 수 없다"며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내 첫 LED 조명용어집 발간

한국광기술원...전문용어 알기쉽게 기술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선호)이 LED조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LED조명용어집을 발간했다. 최근 발간된 LED 조명용어집은 LED, 생산장비, 기본단위 및 물리량, 색채, 조명특성, 조명제품 등 6개 관련분야로 나눠 LED 전문 용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기술했다. 한국광기술원 조명용어집은 LED평가기술센터장을 비롯해 장우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 대학과 연구기관, 업계 관련 전문가 13명이 공동으로 펴낸 이 책은 LED관련 용어에 대한 풀이와 함께 관련 사진과 도표, 그림은 물론 필요한 경우 출처를 함께 밝혀



이해를 돕고 있다. 또 관련 용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도 실었다. 한국광기술원 관계자는 "LED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접할 기회가 많아 지고 있으나 전문적인 용어나 단어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우리나라 LED 조명산업 보급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규대출자 10명중 4명 '백수'

2011년 42.9% 비경제활동...8년새 16%p 늘어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100명 중 43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청년 실업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월 기준으로 그 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비경제활동률이 42.9%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26.7%에 비해 8년 새 16.2%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고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신규 대출자들이 취업난 속에서 계속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을 살펴봐도 신규 대출자의 비경제활동률은 2007년 34.0%, 2008년 37.8%, 2009년 40.8%, 2010년 42.8%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20대 남성 실업률은 8.5%로 20대 여성(6.5%)에 비해 2%포인트 높았다. 고용률 변화 추이를 살펴봐도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2000년 66.0%에서 2012년 57.3%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20대 여성 고용률은 54.9%에서 58.8%까지 올랐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자 고용률이 고학력자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고용률은 2003년 76.6%에서 2011년 75.8%로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 70.9%에서 58.3%로 12.6%포인트나 떨어졌다. /연합뉴스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대차 '트라고 엑시언트(TRAGO XCIENT)'의 광주·호남지역 신차발표회에서 고객들이 전시된 트라고 트럭을 둘러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현대차 '트라고 엑시언트' 광주서 첫 선

DJ센터서 트랙터·카고·덤프 대형트럭 신차발표회

현대자동차가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회사 관계자와 광주·호남지역 주요 고객 및 물류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트럭 신차 '트라고 엑시언트(TRAGO XCIENT)'의 신차발표회를 가졌다.

현대차는 주요 지방 거점인 호남권 대형트럭 고객들에게 신차 '트라고 엑시언트'를 직접 선보이기 위해 이번 신차발표회를 마련했으며 6X2 트랙터, 25t 카고트럭, 25.5t 덤프트럭 등 총 3종의 트라고 엑시언트 주력 차

종을 전시했다. 2006년 '트라고' 출시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트라고 엑시언트'는 웅장하고 역동적인 스타일과 동급 최고 연비, 넓은 실내 공간을 바탕으로 대형 트럭의 세계 기준이라고 불리는 유럽 브랜드 트럭과 견줄 수 있는 최고급 대형트럭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국 아파트 거래 85%는 중소형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약 85.2%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알페이는 아파트 거래량 60만 2019건(2012.1~2013.3)을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51만2845건이라고 17일 밝혔다. 동기간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은 8만9174건에 그쳤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중소형 83.3%(17만4783가구), 중대형(3

만5147가구)이 16.7%를 각각 차지했다. 지방은 중소형 86.2%(33만 8062가구), 중대형 13.8%(5만4027가구)로 중소형 유통 현상이 더 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중소형 거래 비중이 94.4%로 가장 높았다. 제주(93.6%), 전북(93.5%), 경남(91.9%), 강원(91.3%) 등도 주택시장에서 매매된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중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거래는 대구(27.6%), 울산(20.6%) 등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연합뉴스

중소 83% "블랙 컨슈머 부당 요구 수용" 14%만 법적 대응 등 대처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블랙 컨슈머(구매한 상품의 보상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기업의 83.7%는 소비자의 악

성 민원에 대해 '그대로 수용한다'고 답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14.3%, '무시한다'는 2.0%였다. 악성 민원의 유형은 '제품 사용후 반품·환불·교체요구'가 58.6%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의

무상수리 요구'(15.3%), '과도한 금전적 보상 요구'(11.3%), '인터넷,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 위협'(6.0%)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한 요구를 받는 빈도는 '월평균 1~2회'가 43.8%에 이어 '1회 미만'(29.1%)이 많았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1923.84 (+1.63)	558.54 (-0.41)	2.63% (+0.02)	1118.50원 (+3.30)

갤럭시S4 국내 출고가 90만원 안팎

90만원대 후반서 낮춰

삼성전자가 예초 9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했던 갤럭시S4의 국내 출고가를 90만원 안팎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4 출고가를 80만원대 후반 혹은 90만원대 초반으로 잡고 이동통신사와 정확히 출고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이는 갤럭시S 시리즈의 이전 모델인 갤럭시S3의 출고가 99만4000원

보다 10만원 가량 낮은 것이다. 갤럭시노트2(출고가 108만9000원)보다는 20만원 가량 저렴하며 아이폰5(94만6000원)보다도 싸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4의 국내 출고가를 90만원 안팎으로 낮춘 것은 이 제품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디스플레이 초반으로 잡고 이동통신사와 소프트웨어에서 기존보다 고사양을 갖춘 점을 비교하면 과격적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흡수로 56km 시설 현대화

농어촌공 전담본부 274억 들여 수로 정비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흡수로를 구조물로 바꾸는 등 수로 정비사업에 274억원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17일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 전체 용배수로 3만8921km 가운데 공사가 관리하는 1만9298km의 55% 수준인 1만593km가량이 흡수로서서 시설 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흡수로 8861km를 구조물화해 광주·전남 관내 9만6000여ha 농경지에 안정적인 급수를 추진하는 등 영농여건을 개선해 왔다. 흡수로는 물의 손실이 크고 수조제거와 수로준설 등 수로기능을 유지하는 데 곤란함이 많아 시설현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남본부는 올해 2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56km의 흡수로를 구조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점차 예산을 늘려 전체 흡수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행운 전남본부장은 "흡수로를 구조물로 바꾸면 농업용수의 손실 감소, 유지관리비의 절감, 배수능력 향상에 따른 침수예방, 집중호우 시 토사제방 붕괴로 발생하는 농경지 유실과 매몰의 사전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전체 흡수수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항공권 예약문의: 1588-2682 홈페이지 www.keair.co.kr



강원도와 광주광역시 90%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양양국제공항 ⇄ 광주공항 국내선 운항

- * 양양공항 출발 12:20 ◯ 광주공항 도착 13:50
- * 광주공항 출발 14:20 ◯ 양양공항 도착 15:50



양양국제공항(2018평창동계올림픽 공항) 광주광역시 농장으로 현지 이벤트!

■ 2013.4.20(토) : 16:30~17:30 총창로 일원		
행사명	장소	비고
거리캠페인	총창로 일원 4거리	강원도지사, 양양군수
경품 추첨	광주우체국 영업과 앞	왕복 무료항공권, 무료 숙박권, 농특산물 등
박 터트리기	강원도·광주광역시 교류협력 기원	

- 2013.4.21(일) : 08:00 - 12:00, 광주상무시민공원
- 제10회 호남제마라톤대회 "양양-광주간 국내선 운항" 홍보
- 강원도 관광 홍보부스 운영

설악산 무등산